

건강불평등 연구와 실천 확산의 가교

『한국건강형평연구』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학회 출범 20년만이자, 코로나19 팬데믹을 빠져나오며 내놓았던 창간호에서는 한국 건강형평연구의 역사와 팬데믹으로 확인한 건강불평등 현황 그리고 학회지가 나가야 할 방향까지 폭넓게 담았다면, 2호는 독자들이 기대하는 학회지 모습에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건 바로 2024년 현재 한국 사회의 건강불평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집 주제나, 독자들에게 새로운 전망과 탐색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좋은 연구들로 엮는 일들 말입니다. 이번 호는 국내·외 정치사회적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가 보건의료자원과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어떤 사회운동과 연구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비판을 담았습니다.

2호 특집 주제는 최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의료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불균형을 담은 ‘보건의료의 지역불평등’으로서 두 편의 관점 논문과 기획논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백주는 지금까지 한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지역불평등에 대한 근본적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이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지역불평등의 원인인 시장위주의 민간의료부문 활용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활용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권을 해결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임준은 민간주도적 경쟁적 의료환경에서 만들어진 의료인력의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분포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양성과 확대,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력배치와 질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와 지불제도 개편을 제안하였습니다. 표지희 등은 보건의료의 지역불평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의료와 교통 중첩적 취약지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습니다. 환자와 환자보호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편의성의 확대, 그리고 지역내 의료기관의 질 제고와 관련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원고에서 박지은과 전보영은 코로나19 전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가족돌봄자들이 겪는 돌봄부담 및 건강수준의 변화를 소개하였습니다. 재택기반 노인돌봄은 주로 여성돌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젠더편향이 뚜렷했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老)-노(老) 케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단절된 외부 출입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주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을 늘림으로써 주관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노령 가족돌봄자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허현희와 성정

숙은 젠더 관점에서 본 한부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교차성 이론에 기반한 질적 연구로 분석했습니다. 한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와 남성성 규범 강제와 더불어 젠더화된 사회구조적 불평등 맥락을 구성했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유급생산노동과 무급돌봄노동, 빈곤, 보건의료체계의 편향은 한부모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사회적 결정요인이었습니다. 최홍조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결성된 시민사회연대체인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가 국가에 대하여 인권기반의 방역을 요구하면서, 단절적이고 공생적인 변혁 전략을 실천하면서 공중보건위기에서 사회권력의 역할을 수행했던 과정을 상세한 사례 보고(case report)에 담았습니다.

우리 학회지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건강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경험, 관찰, 통찰을 담음으로써 실천 현장과 학계 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Voices from the Field)'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은 의료권력에 종속되는 장애인의 삶과 건강보장의 한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의 삶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료권력에 대한 투쟁을 극복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숙량은 테포 크뢰거의 『돌봄 빈곤(Care poverty)』을 리뷰하며, 돌봄 빈곤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 있는 삶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건강이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정치, 경제체제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효율과 이윤을 우선하는 식품·주거·노동·교통·보건의료의 틀에 매이고, 젠더와 인권 같은 인식론적 확장이 공격당하며, 기후위기나 국제분쟁처럼 초국적 이슈의 영향하에서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삶을 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건강형평연구』는 불의한 질서와 규범을 드러내고, 도전하며, 변혁하려는 사유와 운동에 힘을 더하는 연구와 실천들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부편집위원장 김성이